

## 고린도전서 15:45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제안 — “살아 있는 육신”인 아담과 “살려 주는 영”인 그리스도 —

김의창\*

### 1. 들어가는 말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곳은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전 장에 걸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교리가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다음, 12-34절에서 바울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sup>1)</sup>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한다. 35-5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한다. 그리고 마지막 51-58절에서 바울은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현실적 귀결에 대한 언급으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구약 본문들을 인용하는데,<sup>2)</sup> 22절과 45절에서 “아담”을 언급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

\*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ec.kim@ttgu.ac.kr](mailto:ec.kim@ttgu.ac.kr).

1) 고전 15:12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 예를 들어, NTG<sup>28</sup>의 인용 각주에 따르면, 고전 15:25에서 시 110:1 인용, 고전 15:27에서 시 8:6 인용, 고전 15:32에서 사 22:13 인용, 고전 15:45에서 창 2:7 인용, 고전 15:54에서 사 25:8 인용, 고전 15:55에서 호 13:14를 인용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R. E. Ciampa and B. S. Rosner, “1 Corinthians”, G. K. Beale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들 가운데에서 창세기 1-2장의 창조 이야기를 중요하게 논의한다.<sup>3)</sup> 특히 45절은 35-50절이 이루고 있는 교차대구법 구조의 가운데 놓여 있고,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핵심을 담고 있다. 바울은 45절에서 창세기 2:7을 인용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sup>4)</sup> 기존의 한글 번역들은 고린도전서 15:45의 “*ψυχὴν ζῶσαν*”과 “*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sup>5)</sup>

『개역한글』(1961)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개역개정』(1998)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공동개정』(1999)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새번역』(2001)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743-748.

-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J. R. Asher, *Polarity and Change in 1 Corinthians 15: A Study of Metaphysics, Rhetoric, and Resurrection*, Hermeneutische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42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10-116; J. P. Heil, *The Rhetorical Role of Scripture in 1 Corinthian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15 (Atlanta: SBL, 2005), 231-260; M. Rosik,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1 Cor 15:12-58): *The Role of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Pauline Argumentation for the Resurrection*, European Studies in Theology, Philosophy and History of Religions 6 (Frankfurt: Peter Lang, 2013), 185-216.
- 4) “신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본문들 중에 하나이다.” J. R. Asher, *Polarity and Change in 1 Corinthians 15: A Study of Metaphysics, Rhetoric, and Resurrection*, 110.
- 5) 영어 번역들은 “*ψυχὴν ζῶσαν*”을 “살아 있는 존재”(living being, NIV, ESV)나 “살아 있는 영혼”(living soul, KJV)으로 번역하였다. 독어 번역들은 “*ψυχὴν ζῶσαν*”을 “살아 있는 존재”(lebendigen Wesen, LB)나 “땅에 속한/일시적인 산 존재”(irdisches Lebewesen, EIN)로 번역하였다.

『현대인의 성경』(1985)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본 논문은 고린도전서 15:35-50에 나타나는 부활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논의하고 있는 “이중적인 대조”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중적 대조, 곧 “존재론적 대조”(ontological contrast)와 “기능적 대조”(functional contrast)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논의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5:45에서 나타나는 창세기 2:7 인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45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바울의 구약 인용, 곧 창세기 2:7 자체에 집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45를 해석함에 있어서, 창세기 2:7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ψυχὴν ζῶσαν*”을 “생명”(『개역개정』)이나 “산 영”(『개역한글』, 『새번역』)으로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바울의 창세기 인용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와의 대조를 설명하려는 바울의 의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바울은 이 대조를 이중적으로 강조하는데, 하나는 “존재론적”인 것으로 “(살아 있지만 [장치] 죽음 가운데 있게 되고 여전히 흙에 속하여 있는) 육신”인 아담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속하여 있는) 영”인 그리스도를 대조한다. 또 하나의 대조는 “기능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살아 있는” 아담과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며) 살려 주는” 그리스도를 대조한다. 바울은 이런 이중적 대조를 통하여서 창세기에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57-58절)을 권면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린도전서 15:45의 창세기 2:7 인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45에 나타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중적 대조에 대한 바울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15:45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고린도전서 15:42-50의 구조

고린도전서 15:35-50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데, 35절은 부활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두 가지 질문들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πῶς)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로 부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ποῖο σώματι) 나타나는가?”로 부활한 몸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다. 바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36-41절에서 답을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42-50절에서 답을 한다. 베일리(K. E. Bailey)는 수사학적으로 바울의 각 질문들이 매우 정교한 교차대구법(chiastic structur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42-50절)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sup>6)</sup>

42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의 대조(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의 변화)

43절: 수치/약함에서 영광/능력으로 변화

44절: 육신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sup>7)</sup>으로 변화

45절: 아담과 그리스도 대조

46-47절: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sup>8)</sup> 대조

48-49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

50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의 대조

바울은 부활한 몸의 본질을 42-44절에서 네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한다. 곧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42절), “수치”에서 “영광”으로(43절), “약함”에서 “능력”으로(43절), 그리고 “육신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44절) 변화한다. 바울은 부활 가운데 이뤄지는 몸의 변화를 “심겨지고”(σπείρεται)<sup>9)</sup> “살리심을 받는”(ἐγείρεται)<sup>10)</sup> 동사

6) K. E. 베일리,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고린도전서의 문예-문화적 연구』, 김귀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694에 나오는 도표를 참고하여 수정을 하였다.

7) 『개역개정』은 “σῶμα πνευματικόν”을 “신령한 몸”으로 번역하였지만, “육신적인 몸”과의 대조를 위해서 “영적인 몸”으로 번역한다.

8) 『개역개정』은 “τὸ πνευματικόν”을 “신령한 사람”으로 번역하였지만, “육신적인 사람”과의 대조를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번역한다.

9) 『개역개정』은 “σπείρεται”를 “심고”라고 번역하였지만, 동사의 형태는 “σπείρω”(“심다”, “씨를 뿌리다”)의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이다. 수동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심겨지고”라 번역하였다. 43-44절에서도 동일하다.

10) 『개역개정』은 “ἐγείρεται”을 “살아나며”라고 번역하였지만, 동사의 형태는 “ἐγείρω”(“일으

들을 통해서 강조한다. 이 반복되는 수동태 동사들의 주어, 곧 동사들의 행동을 받는 대상은 42-43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42-43절의 각각의 요소들, 곧 “씩을 것”이나 “씩지 아니할 것”(42절), 그리고 “수치”, “영광”, “약함”, “능력”(43절) 모두는 방법(method)이나 방식(manner)을 나타내는 전치사 “~을 통하여”(ἐν)를 취한다.<sup>11)</sup> 따라서 이 요소들은 심겨지고 살리심을 받는 대상(주어)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심겨지고 살리심을 받는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다가 44절에서는 “육신적인 몸”(σῶμα ψυχικόν)과 “영적인 몸”(σῶμα πνευματικόν)이 전치사 없이 바로 주격으로 동일한 수동태 동사들을 취한다. 따라서 4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42-43절에서 “심겨지고” “살리심을 받는” 대상(곧 주어)은 “몸”(σῶμα)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12)</sup> 또한 이 단락에서 제시되는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 성도들의 두 번째 질문, “부활한 몸의 본질은(ποιῶ σῶματι)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42-43절 각 대조의 주어가 바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바울은 42-44절에 설명하였던 부활의 변화를 46-50절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성도들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바울은 이 변화를 “입게 될 것이다”(φορέσομεν)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sup>13)</sup>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곧, “육신적인 것”(τὸ ψυχικόν)과 “영적인 것”(τὸ πνευματικόν)(46-47절), “흠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48-49절), 그리고 “씩을 것”과 “씩지 아니할 것”(50절)의 대조이다.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 “씩을 것”과 “씩지 아니할 것”의 대조는 42절의 설명과 수미쌍관을 이루게 되고, 바울은 이 대조를 52-54절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한다. 고린도 성도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의 몸의 본질이 비록 성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

키다”, “살리다”)의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이다. 수동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살리심을 받는다”고 번역하였다. 43-44절에서도 동일하다.

11)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372-375.

12) 슈라이너(T. R. Schreiner)도 그의 주석에서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 T. R. Schreiner, *1 Corinthi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7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8), 321-322.

13) 그리스어 “φορέσομεν”은 권유를 나타내는 부정과거 가정법 1인칭 복수로도 볼 수 있다(“입도록 하자”).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194-195; R. Collins, *First Corinthians*, Sacra Pagina 7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9), 572; J. P. Heil, *The Rhetorical Role of Scripture in 1 Corinthians*, 234, n. 9.

하지만(몸),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sup>14)</sup>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대조에 대한 바울의 논의의 핵심에는 45절의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대조가 있다. 이처럼 45절은 구조적으로 교차대구법의 핵심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앞(42-44절)과 뒤(46-49절)에서처럼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오직 “대조”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별히 45절의 대조는 “새 창조 속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새 시대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5)</sup>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5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창세기 2:7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3. 고린도전서 15:45와 창세기 2:7

바울은 고린도전서 15:45상반에서 “기록된 바”(οὕτως γέγραπται)라는 인용구문을 통하여서 창세기 2:7하반을 인용한다.

(고전 15:45상반)

GNT<sup>5)</sup> Εγένετο ὁ πρῶτος ἄνθρωπος Ἀδὰμ εἰς ψυχὴν ζῶσαν  
『개역개정』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창 2:7하반)

וַיִּהְיֶה הָאָדָם חַי נְשָׁמָה מֵאֲדָמָה MT

LXX<sup>16)</sup> καὶ ἐγένετο ὁ ἄνθρωπος εἰς ψυχὴν ζῶσαν  
『개역개정』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LXX과 비교하였을 때에, 바울은 첫 단어 “그리고”(καί)를 생략하고, 가운데에 “처음”(πρῶτος)과 “아담”(Ἀδὰμ)을 삽입하여 인용하였다. 바울이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를 삽입한 것은 테오도시온(Theodotion)이나 심마쿠스(Symmachus)의 인용 가운데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것보다는 LXX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있

14) 티슬턴(A. C. Thiselton)은 이를 가리켜 “정체성의 연속성과 더불어 형태상의 변화”라는 말로 표현한다. A. C. 티슬턴,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 본 실용적 주석』, 권연경 역 (서울: SFC, 2011), 502.

15) K. E. 베일리,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고린도전서의 문예-문화적 연구』, 695.

16) 모든 LXX의 본문은 다음의 책을 인용하였다. H. B. Swete,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다.<sup>17)</sup> 그러나 45절에 등장하는 “처음”이라는 형용사는 구약 본문이나 다른 교부들의 인용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논지는 고린도전서 15장 전반에 나타나는 논의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논의는 첫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단 22절과 45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창세기 1-2장의 창조와 아담 이야기에 대한 암시들(allusions)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단 바울은 고린도전서 15:22에서 “아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활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첫 번째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36-41절에서 답할 때에도 창세기 1-2장에 대한 암시들을 언급한다.<sup>18)</sup> 고린도전서 15:38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한 것은 창세기 1:11-12에서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또한 고린도전서 15:39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는 바울의 논의도 창세기 1:20-26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로 분류한 것을 암시한다.<sup>20)</sup>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40-41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는 내용은 창세기 1:14-15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로 하여금

17) C. D. Stanley, *Paul and the Language of Scripture: Citation Technique in the Pauline Epistles and Contemporary Literature*,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Monograph Series 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08-209; J. P. Heil, *The Rhetorical Role of Scripture in 1 Corinthians*, 231-232.

18) 라이트(N. T. Wright)는 고전 15:35-50의 논의가 창 1-2장의 창조 이야기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살리는 영”은 창세기에서 창조주의 활동과 신약 시대의 예수의 사역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박문재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539-570.

19) D. E. Garland,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729; J. P. Heil, *The Rhetorical Role of Scripture in 1 Corinthians*, 232; R. E. Ciampa and B. S.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0), 803.

20) R. Collins, *First Corinthians*, 566; J. P. Heil, *The Rhetorical Role of Scripture in 1 Corinthians*, 232; R. E. Ciampa, and B. S.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805.





답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행위와 고린도전서 15:45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행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었지만, 바울은 그 역할을 고린도전서 15:45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맡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대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미 창세기 2:7하반을 인용하면서 “처음”(πρῶτος)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서 처음 아담과 “마지막”(ἔσχατος) 아담을 대조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22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에서 하였던 대조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 4.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고린도전서 15:45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아담을 “ψυχὴν ζῶσαν”으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으로 묘사하면서, 이 두 아담을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대조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진행한다.<sup>25)</sup>

##### 4.1. 아담과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대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45에서 첫 번째 아담을 “ψυχή”로 설명하고 마지막 아담을 “πνεῦμα”라고 설명한다. 그리스어 단어 “ψυχή”는 생명, 사람, 생명, 내적 자아, 영혼 등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sup>26)</sup> 이러한 용어는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어원적인 접근보다는 바울이 이 용어를 어떠한 맥락과 논의 가운데 사용하는지에 유의해야 한다. 바울은 45절의 맥락 가운데에서 “ψυχή”를 “πνεῦμα”와 대조를 이루는 의미로 사용한다.<sup>27)</sup> 44절에서 부활을 통해서 “육신적인 몸”(σῶμα ψυχικόν)이 “영

25) 스탠리(C. D. Stanley)도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창 2:7의 인용뿐만 아니라 바울의 논의 전반에 흐르는 “중심주제”(backbone)라고 설명한다. C. D. Stanley, *Paul and the Language of Scripture: Citation Technique in the Pauline Epistles and Contemporary Literature*, 208.

26) F. W. 덴커,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 김한원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604. 여기에서는 문맥상 “영”(πνεῦμα)과 대조되는 뜻의 “육”을 나타낸다.

27) J. P. Heil, *The Rhetorical Role of Scripture in 1 Corinthians*, 235; R. E. Ciampa and B. S.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821.

적인 몸”(σῶμα πνευματικόν)으로 변화한다고 하였고, 46절에서는 “육신적인 것”(τὸ ψυχικόν)은 “영적인 것”(τὸ πνευματικόν)과 대조된다.<sup>28)</sup> 이러한 대조는 비단 고린도전서 15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14-15에서 바울은 “ψυχή”와 “πνεῦμα”는 대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육신적인 사람(ψυχικός ἄνθρωπος)<sup>29)</sup>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θεοῦ)<sup>30)</sup>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πνευματικῶς)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ὁ πνευματικός)<sup>31)</sup>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저자 사역)

이처럼 바울이 설명하는 “ψυχή”는 “영적이지 않은 것” 곧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πνεῦμα”는 반대로 “육신적이지 않은 것” 곧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2)</sup>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육신적인 사람”(ψυχικός ἄνθρωπος)은 여전히 현세에 속하여서 다른 일, 곧 신령한 일을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바울이 3:1에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훈계와 연결 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 준 태도들이 그들이 영적인 자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육신적인”(ψυχικός)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σαρκίνους)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비판한다. “내가 영적인 자들(πνευματικοίς)<sup>33)</sup>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자들(σαρκίνους)<sup>34)</sup>…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1에 나타나는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육신적인”(ψυχικός) 것과 “육신적인”(σάρκινος) 것 모두가 동일하게, “영적인[신령한]”(πνευματικός)

28)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결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은 44절을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번역하였지만, 영어 번역들 가운데에서 ESV, NIV, KJV는 “자연적인 몸”(natural body)과 “영적인 몸”(spiritual body)으로, RSV는 “육신적인 몸”(physical body)과 “영적인 몸”(spiritual body)으로 번역하였다.

29) 『개역개정』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신령한 자들”에 대한 대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자들”이라고 표현하였다.

30)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고 번역을 한다.

31) 『개역개정』은 “신령한 자”라고 번역한다.

32)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ψυχή”에 대한 이해는 그 당시 플라톤적인 “불멸의 영혼”이나 “물질적인 인간 존재 중에서 영원히 남아 있을 부분”에 대한 이해와 구분된다. K. E. 베일리,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고린도전서의 문예-문화적 연구』, 699.

33) 『개역개정』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번역한다.

34) 『개역개정』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적인 자들”에 대한 대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자들”이라고 표현하였다.

것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논의는 사람을 “영”(πνεῦμα)과 “육”(σάρξ)과 “혼”(ψυχή)의 세 가지 카테고리 나눈 것이 아니라, 오직 두 개의 카테고리, 즉 “영적인 자들”과 “육과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육신적인”(ψυχικός) 것과 “육신적인”(σάρκιος) 둘 다 바울이 “통상적으로 인간적인” 사람들, 단순히 현세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들에 의해서, “사람을 따라”(κατὰ ἄνθρωπον, 3:3) 살아가는 자들, 내세의 돌입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sup>35)</sup>

영적인 자들이나 육신적인 자들 모두는 몸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자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육신적인 것들을 신경 쓰며 사는 육신적인 자들인가에 있다.<sup>36)</sup> 톰 라이트(N. T. Wright)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들이 창조주의 성령에 의해서 내주함을 입어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혜롭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ψυχικός]) 삶의 차원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실제로 모든 썩어질 피조물에 공통적인 ([σάρκιος]) 삶의 차원에서 생활하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바울이 12장에서 영적인 것들([πνευματικά])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은 “비육신적인”이라는 의미에서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영감 받은 말, 치유 등등의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의 육신의 측면들에 작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sup>37)</sup>

따라서 고린도전서 15:45에 나타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대조, 곧 “육신”(ψυχή)인 첫 번째 아담과 “영”(πνεῦμα)인 마지막 아담은 각자의 존재론적인 대조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는 세상적이고 통상적인 인간의 삶으로부터

35)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459-460.

36) 이런 면에서 베일리는 고전 15:35-50에 나타나는 “몸”(σῶμα)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1) “육체”(σάρξ)를 가진 몸; 2) “육신적인 몸”(σῶμα ψυχικόν); 그리고 3) “영적인 몸[신령한 몸]”(σῶμα πνευματικόν)이 있다고 설명한다. 육신적인 몸은 살아 있어서 통상적인 생명의 호흡에 의해서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육신과 관련된 인격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활동하는 몸이다. K. E. 베일리,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고린도전서의 문예-문화적 연구』, 692-700; 라이트도 비슷한 논의를 한다.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559-560.

37)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553.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삶으로의 변화로 규정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톰 슈라이너(T. R. Schreiner)는 42-50절에서 바울이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고 움직이는 몸”이라고 주장한다. 그 몸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physical), (땅 위의) 육신적인 몸(earthly body)과 달리 다른 영역에서 사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약동하기 때문이다.<sup>38)</sup>

50절에서 “육과 혈”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신체적인 몸(physical body)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씩을” 육과 혈, 곧 “수치와 약함 속에 있고 육신적인 몸에 속한” 육과 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sup>39)</sup> 바울은 42-50절의 교차대구법의 구조 중심에 45절을 배치함으로써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성도들이, 땅에 속한 몸이나 육신적인 몸에서 하늘에 속한 몸과 영적인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아담, 살려 주는 영”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직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부활의 몸이 마지막 아담의 “살려 주는 영”의 기능과 사역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sup>40)</sup>

## 4.2. 아담과 그리스도의 기능적 대조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조는 각각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들”(ζῶσαν, ζωοποιούν)로 나타난다. 첫 번째 아담은 “살아 있는 육신”(ψυχὴν ζῶσαν)인 것에 반해, 두 번째 아담은 “살려 주는 영”(πνεῦμα ζωοποιούν)으로 묘사된다. 그리스어 동사 “ζωοποιέω”는 “살아나게 하다”, “살리다”, “생명을 주다”를 의미하는데,<sup>41)</sup> 바울은 이 동사를 자신의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7번 사용한다.<sup>42)</sup> 특별히 이 단어가 부활의 문맥 가운데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

38) T. R. Schreiner, *1 Corinthi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22.

39) *Ibid.*, 324.

40)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541.

41) F. W. 덴커,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 263.

42) 롬 4:17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롬 8:11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전 15:22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36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전 15:45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후 3:6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갈 3:21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을 주고” “살리는” 주체는 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롬 4:17; 8:11).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3번 사용하는데, 22절과 36절에서는 살려 주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다.

『개역개정』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ζωοποιηθήσονται).

(고전 15: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리심을 받지**(ζωοποιεῖται) 못하겠고<sup>43)</sup>

바울은 이 동사를 부활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면서, 창조주의 능력이 ‘죽은’ 씨앗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44)</sup>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이 마지막 아담에게 기능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이 “살려 주는 영”으로 묘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조된다. 치암파와 로스너(R. E. Ciampa and B. S. Rosner)는 이러한 “살려 주는 영”은 창세기 2:7을 에스겔 37장(특히 6, 9, 10, 14절)의 빛 가운데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45)</sup>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려 주는 사역과 기능을 감당하였지만, 에스겔 37:14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그의 백성 가운데 두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루시기로 약속한 사역이, 이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었다고(참조. 고후 3:17) 설명한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살아 있는 육신”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 이처럼 “살려 주는” 사역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롬 4:17; 8:11; 고후 3:6).<sup>46)</sup>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한 몸이 된 자들이고(고전 12:13),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고(고전 10:16-17),<sup>47)</sup>

43) 『개역개정』은 수동태 동사인 “ζωοποιεῖται”를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능동태적 의미로 번역하지만, 수동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이를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번역하고 있다. 예를 들어, ESV, NRSV, NIV 모두 “살아나다”(come to life)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에 KJV는 “되살아나게 되다”(be quickened)로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다.

44)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544.

45) R. E. Ciampa and B. S.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820.

46) D. E. Garland, *1 Corinthians*, 734.

47) J. A.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참조. 빌 3:10).

이러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이중적 대조에 대한 바울의 논의는 고린도전서 15:50으로 귀결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42-49 절에서 “육신적인 몸/것”은 “영적인 몸/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특히 42-43 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된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몸에는 영광이나 강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내재된 가장 큰 영광과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주장한다.<sup>48)</sup> 이러한 대조는 단지 생명을 받은 육신적인 아담과, 생명을 주는 영인 예수님의 대조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의 이 “혈과 육의 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살려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고 전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5. 나가는 말: 고린도전서 15:45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제안

고린도전서 15:45의 “마지막 아담”(ὁ ἔσχατος Ἀδάμ)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하는 많은 “아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지점, 즉 “최종적인 아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49)</sup> 바울이 45절에서 제시하는 대조는 “살아 있는 육신”(ψυχήν ζῶσαν)이 된 “첫 번째 사람 아담”(ὁ πρῶτος ἄνθρωπος Ἀδάμ)과 “살려 주는 영”(πνεῦμα ζωοποιούν)이 된 “마지막 아담”(ὁ ἔσχατος Ἀδάμ)이다. 바울은 이미 21-22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였는데, 45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중적으로, 존재론적인 대조와 기능적인 이중적 대조로 설명한다. 바울이 아담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아담의 존재론적 특징을 강조한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육신”으로 만드셨다. 창세기의 기사는 첫 번째 아담이 창조로 말미암아 그 출발점이 되었고, 모든 인간이 첫 번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은 죄로 말미암

Anchor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598.

48) D. 프라이어, 『고린도전서: 지역 교회에서의 생활』, 정옥배 역 (서울: IVP, 2022), 396.

49)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539.

아 “살아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되었고, 그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전 15:22). 첫 번째 아담은 비록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였지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땅에 속한 자였다. 그에 반해 마지막 아담은 “영으로”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였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45에서 “*ψυχὴν ζῶσαν*”을 “생령”(『개역개정』)이나 “살아 있는 영”(『개역한글』, 『새번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영”과 대조를 이루는 “*ψυχή*”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45절의 “*ψυχὴν ζῶσαν*”은 44절의 “육신적인 몸”(σῶμα ψυχικόν)과 46절의 “육신적인 것”(τὸ ψυχικόν)에 대한 바울의 논의에 따라서 “살아 있는 육신”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sup>50)</sup> 이는 통상적인 종류의 인간의 몸, 통상적인 생명의 호흡에 의해서 활동하는 몸과 관련되어 이해해야 한다.<sup>51)</sup> 다시 말해 첫 번째 아담은 “살아 있는 육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혹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데에 실패한) 인격이라는 것을 표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 주는 영”(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이다. 이 표현은 이중적인데 첫째로 ‘존재론적’으로 “영”(πνεῦμα)은 44절의 “영적인 몸”(σῶμα πνευματικόν)을 연상시키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한 몸의 첫 모범(23절)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전형적인 사례(paradigm case)에 해당하며 부활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sup>52)</sup> 또 다른 하나는 ‘기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살려 주는”(ζωοποιῶν) 사역과 관련이 있다. 이 사역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역인데, 그것은 이제(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려 주는 영”으로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50절). 다시 말하자면, 예수는 단지 개별적인 “영적인(신령한) 몸” 곧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만들고자 의도한 존재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될(곧 살려 주는 사역) 바로 그러한 영적인 존

50) 바울이 아담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담의 “육신”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존재” 혹은 “육신에 속한 존재”인 아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ψυχὴν ζῶσαν*”을 “살아 있는, 육신에 속한 존재”나 “살아 있는, 육신적인 존재”라고 해석하지 않고 “살아 있는 육신”이라고 해석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 곧 “살아 있는 영” 자체이신 (“살아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대조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51)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560.

52) A. C. 티슬턴,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 본 실용적 주석』, 477.

재임을 가리킨다.<sup>53)</sup> 이런 점에서 새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이 새로 형성하고 지시한 부활한 몸의 첫 열매로 자리 잡고 있다.<sup>54)</sup>

<주제어>(Keywords)

살아 있는 육신, 살려 주는 영, 존재론적 대조, 기능적 대조, 아담.

living flesh, life-giving Spirit, ontological contrast, functional contrast, Adam.

(투고 일자: 2023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3년 2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3월 6일)

---

53) N. T. 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561.

54) K. E. 베일리,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고린도전서의 문예-문화적 연구』, 703.



<참고문헌>(References)

- 덴커, F. W.,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 김한원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라이트, N. T.,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 베일리, K. E.,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고린도전서의 문예-문화적 연구』, 김귀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티슬턴, A. C.,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 본 실용적 주석』, 권연경 역, 서울: SFC, 2011.
- 프라이어, D., 『고린도전서: 지역 교회에서의 생활』, 정옥배 역, 서울: IVP, 2022.
- Asher, J. R., *Polarity and Change in 1 Corinthians 15: A Study of Metaphysics, Rhetoric, and Resurrection*, Hermeneutische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42,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Ciampa, R. E. and Rosner, B. S., “1 Corinthians”, G. K. Beale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Ciampa, R. E. and Rosner, B. S.,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0.
- Collins, R., *First Corinthians*, Sacra Pagina 7,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9.
- Fee, G.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 Fitzmyer, J. A.,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Garland, D. E.,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Heil, J. P., *The Rhetorical Role of Scripture in 1 Corinthian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15, Atlanta: SBL, 2005.
- Rosik, M.,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1 Cor 15:12-58): *The Role of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Pauline Argumentation for the Resurrection*, European Studies in Theology, Philosophy and History of Religions 6, Frankfurt: Peter Lang, 2013.
- Schreiner, T. R., *1 Corinthi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7,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8.
- Stanley, C. D., *Paul and the Language of Scripture: Citation Technique in*

*the Pauline Epistles and Contemporary Literature*,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Monograph Series 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Swete, H. B.,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Abstract>

**A Suggestion on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15:45:  
Adam as the *Living Flesh* and Christ as the *Life-Giving Spirit***

Euichang Kim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As K. E. Bailey rightly observes, 1 Corinthians 15:45 lies in the heart of the chiasmic structure of verses 35-50, but its meaning is difficult to understand. Especial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ψυχὴν ζῶσαν and 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 in verse 45 was not easy, and it gave the previous Korean translations problems to translate the phrase. On this account, this article examines Paul's use of Genesis 2:7 in 1 Corinthians 15:45, and how Paul contrasts the first Adam and the last Adam.

Paul contrasts the first Adam with the last Adam in a dualistic way. First, Paul makes an ontological contrast which sets an antithesis of Adam who is living but only as a natural being, placed in death and belonging to dust, and Christ who is the spirit, raised from death and belonging to heaven. Paul already explains this contrast in 1 Corinthians 2:14-15 where he makes a sharp distinction between a *natural/fleshly person* (ψυχικὸς ἄνθρωπος) and a *spiritual person* (ὁ πνευματικός). Moreover, in 1 Corinthians 3:1, Paul argues that he could not address the Corinthians as *spiritual people* (πνευματικοῖς) but as *people of the flesh* (σαρκίνοις). This shows that Paul uses the *spiritual* as an antithesis to *natural* or *fleshly*. Thus Paul's contrast continues in 15:45 where he makes an ontological contrast between the first Adam who is still a natural being and the last Adam who is now a spiritual being.

Second, Paul makes a functional contrast which sets an antithesis of Adam who received life from God and Christ who *gives life* (like God). The verb *to give life* (ζωοποιέω) is explicitly and exclusively used with regard to God's ministry in verse 22 and 36 in 1 Corinthians chapter 15. The first Adam was a being that received life from God, but the last Adam is a being that gives life. Through this dualistic contrast, Paul claims that the life-giving ministry that belonged to God in Genesis is now entrusted to the resurrected Christ, which

leads to Paul's exhortation for the Corinthians to belong to Christ and to *abound in the work of the Lord*. Thus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n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15:45 based on the dualistic contrast between Adam and Christ.